더 나은 내일을 위한 투자 –

글로벌 자산배분

2025년 11월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유동성과 인플레와 AI 생태계 성장

더 우호적일 유동성 여건
전세계 사상 최대 신용 팽창
미국 셧다운에 인플레 리스크도 완화

주식: 중국 확대, AI + 인플레헤지
AI 생태계 성장 감안한 분산과
AI 수익성 논란 감안한 분산 병행

원화 약세, 자원국 통화 강세
달러 원 환율 상승 전망 유지
호주, 브라질 관심 상향

박희찬 02-3774-1850 hcpark@miraeasset.com

Executive Summary

1) 더 우호적일 유동성 여건, 전반적인 자산가격 상승을 지지

- 2024년 전세계 GDP 대비 신용 공여 잔액은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이뤄졌던 2020년 팬데믹 당시 수준을 회복.
-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전세계 금리인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9월부터는 연준 금리인하도 재개되어 올해 연말에는 사상 최고 신용 팽창을 보이게 될 것이며, 금리인하 시차효과를 감안하면 내년에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음.
- 중국에서도 초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 확대 기조 지속. 그런데, 부동산 대출은 억제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 이른바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로 인해 증시에 우호적 환경 조성.
- 미국 인플레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핵심 리스크 팩터이나, 미국 정부 셧다운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인플레가 억제될 수 있는 점, 물가지표 자체가 발표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적어도 연말까지는 연준 금리인하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2) 주식 투자전략,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 중국 비중 확대를 통한 글로벌 분산, 그리고 'AI + 인플레 헤지 전략'이 기본 골자.
- AI 는 수익성 논란이 여전한 점 감안해서, 수주가 충분히 확보된 반도체 또는 전력기기 같은 인프라가 더 매력적일 수 있음.
- 인플레 플레이의 대표적인 투자 대상은 우라늄, 희토류. 단, 높은 주가 변동성 감안한 적절한 비중 배분 필요.
- 중국 증시는 밸류에이션 상승 여지가 여전히 큰 마켓으로서, 기술 성장 스타일 + 구조조정 테마 위주로 접근.

3) 원화 상대 약세 전망 유지, 일부 자원국에 대한 관심 확대

- 달러 원 환율 상승이 제한되려면 내년 수출 우려, 내국인의 해외주식 투자 등이 완화되어야 할 것.
- 희토류 등 광물자원 중요도가 커지는 점 감안해서 투자 유망한 자원국에 대한 관심 확대 필요.
- 대표적인 국가가 호주와 브라질로서, 근래 이들 통화는 원화 대비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음.

자산배분 ETF포트폴리오

	종목명	테마 분류	AUM (USDmn)	수수료 (%)	수익률 (%)			배당수익 (%)	설명
					1M	3M	1Y		
Core (주식)	Vanguard Total World Stock	전세계 주식	57,061	0.06	1.8	7.4	18.1	1.36	전세계 주식에 투자하는 ETF. 지역별로는 미국(65.9%), 유럽(14.0%), 신흥국(10.2%) 등.
Core (인컴)	Tiger 종합채권(AA-이상) 액티브	한국 채권	746	0.05	-0.3	-0.8	3.4	-	신용등급 AA- 이상 채권에 투자하는 ETF. 6.36년의 듀레이션으로 국내 전체 채권시장 평균 듀레이션과 유사.
Satel -lite	Global X Hang Seng Tech	중국 기술주	231	0.45	-6.3	10.4	35.0	-	중국 테크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알리바바(9.54%), SMIC(8.7%), 텐센트(8.1%), 넷이즈(7.5%) 등.
	Global X China Biotech	중국 바이오	83	0.68	-9.7	-3.1	54.8	-	중국 바이오테크 관련 기업에 투자. 우시 바이오로직스 케이맨(10.8%), 우시앱텍(10.6%), 비원메디슨(9.9%) 등.
	Global X INDIA Active	인도	53	0.76	4.9	3.0	0.6	-	인도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 HDFC 은행(9.0%), RELIANC GDR(8.0%), ICICI 은행(6.8%) 등.
	VanEck Rare Earth and Strategi	희토류	1,354	0.58	8.7	41.6	53.4	1.39	전세계 희토류, 전략 금속 기업에 투자: 필바라미네랄(7.6%), 앨버말(7.2%), 중국북부희토류하이테크(7.0%) 등.
	Global X Uranium	우라늄	6,031	0.69	17.9	40.2	79.5	-	전세계 원전 및 우라늄 생산 기업에 투자. 카메코(21.9%), 오클로(15.0%), 우라늄에너지(6.1%), 뉴스케일파워(4.6%) 등.
	Global X Artificial Intelligence & Technology	AI 특화	7,079	0.68	6.7	17.6	40.6	0.18	빅테크 위주 AI 관련 기업에 투자. AMD(4.2%), 알리바바(3.7%), 삼성전자(3.7%) 구글(3.6%) 등.
	ARK Fintech Innovation	핀테크	1,253	0.75	-2.6	3.3	72.6	-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ETF. 쇼피파이(9.6%), 코인베이스(6.7%), 로빈후드(5.7%), 팔란티어(4.3%) 등.
	Global X FDS Defense Tech	방산	5,166	0.50	-3.6	10.8	76.7	0.35	글로벌 방산 관련 기업에 투자. 국가별로는 미국(57.1%), 영국(9.7%), 독일(9.2%), 한국(6.6%), 프랑스(5.2%) 등.
	Global X US Infrastructure Development	인프라 개발	9,716	0.47	0.8	4.3	15.7	0.46	미국 인프라 투자 관련 기업에 투자. 산업별로는 자본재(63.5%), 소재(21.0%), 운송(8.8%) 등.
	Global X Super Dividend REITs	고배당 리츠	202	0.58	-0.8	1.4	-1.6	8.10	전세계 고배당 리츠에 집중 투자. 국가별로는 미국(67.2%), 싱가포르(18.0%), 홍콩(3.9%), 남아프리카공화국(4.0%) 등.
	Aberdeen Standard Physical Gold Shares	금	6,759	0.17	4.2	23.0	44.0	-	금에 직접 투자하는 ETF.
Ref.	SPDR S&P500				2.0	7.2	17.2	1.08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10월 30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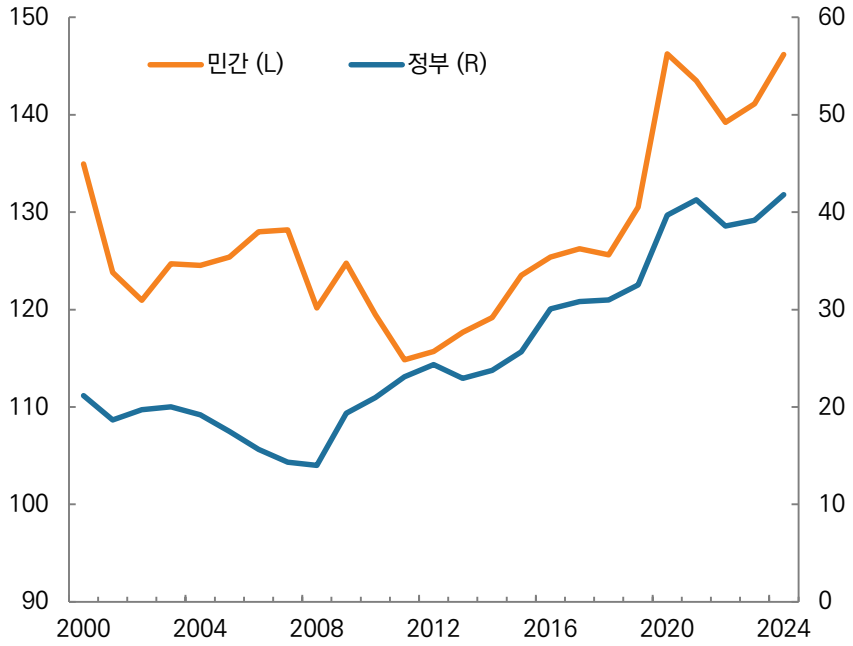
양호한 유동성 여건: 사상 최대 신용 팽창

금리인하 효과로 내년에는 신용팽창 더 심화될 전망

- 세계은행 집계에 따르면, 전세계의 민간 및 정부에 대한 대출 잔액의 GDP 대비 비율은 사상 최고 수준.
-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금까지 전세계 금리인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동 비율은 올해 내년까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큼.
- 특히, 연준이 올해 하반기에 금리인하를 재개한 효과가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역사적으로 최고 수준의 신용 팽창 국면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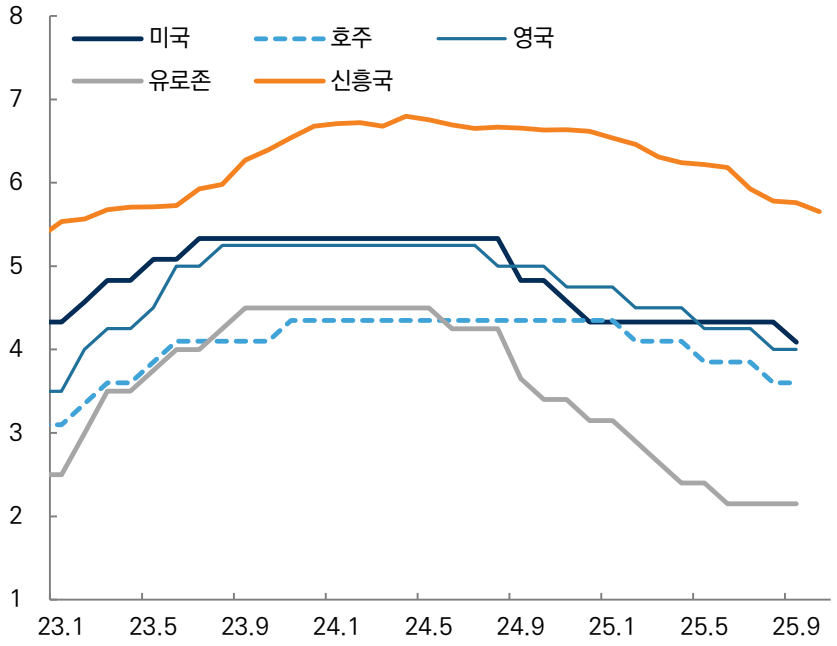
전세계 민간 및 정부에 대한 신용 공여 잔액 (% of GDP)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지난해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리인하 진행 중

중앙은행 기준금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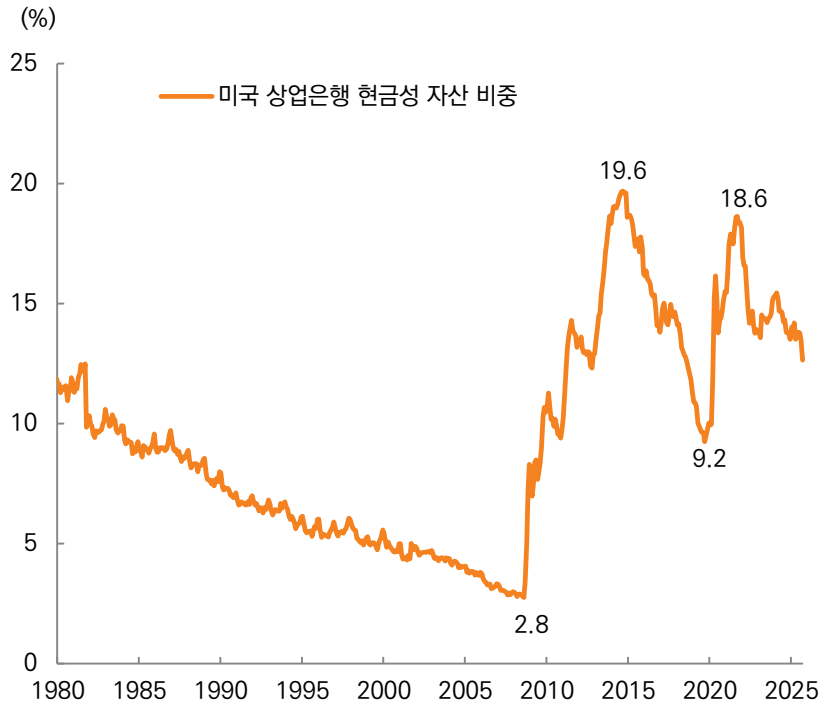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EIC, IMF,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신흥국은 중국 인도 등 주요국에 대해 GDP 가중평균으로 기준금리 도출.

양호한 유동성 여건: 미국도 신용 팽창 가속화

연준 금리인하 재개, 상업은행 대출 증가율 상승세

- 미국 상업은행들은 경험적으로 볼 때 현금 비중이 다소 높은 수준. 이는 대출을 늘릴 여력이 많이 확보되어 있음을 의미.
- 관세로 인한 경기 우려가 진정되고 연준 금리인하 재개되는 상황에서 미국 상업은행들 대출 팽창 속도가 가속화되는 양상.
- 예금보다 대출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즉, 상업은행들이 현금 비중을 줄이고 자산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미국 상업은행 현금 비중 축소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상업은행 대출 증가세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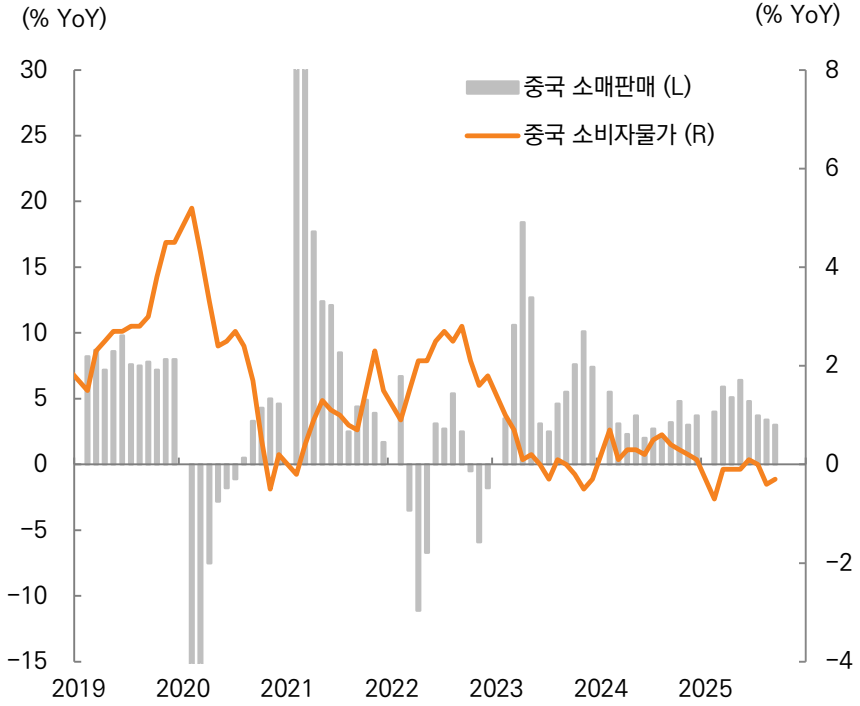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양호한 유동성 여건: 중국 1%대 초저금리

디플레 압력 유지, 중국 국채 10년물 금리 1.8%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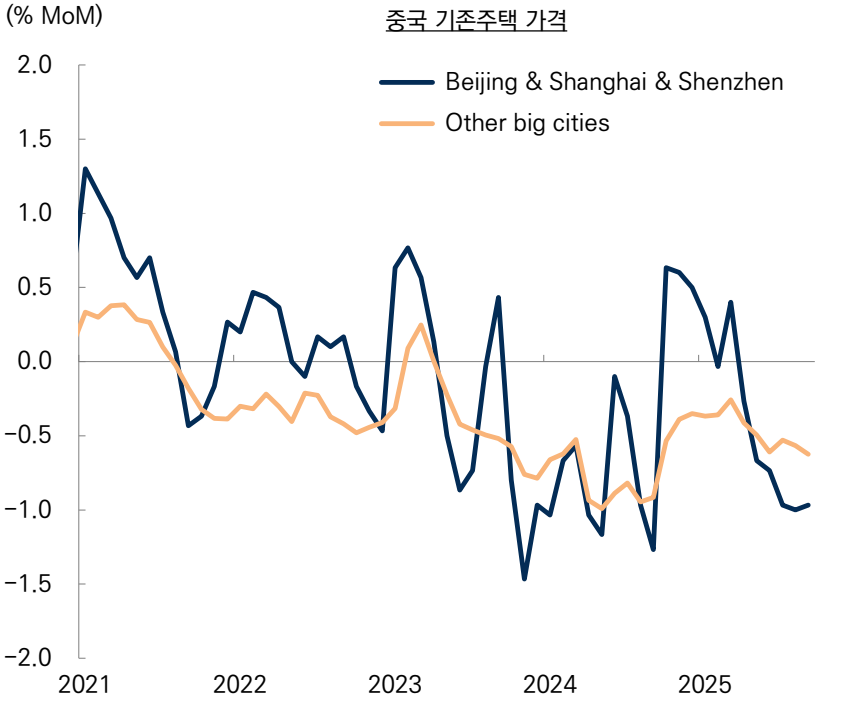
- 중국 소비자물가는 올해 대부분 전년비 0% 아래에서 유지되는 상황. 9월은 전년비 -0.3% 기록.
- 9월 소매판매는 전년비 3.0% 증가율에 그침. 내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지난 3개월간 집값 전월비 하락 폭도 더 커지면서 디플레 압력이 유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 정책당국은 저금리 및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국 소비 모멘텀 둔화, 얕은 디플레 상황 유지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집값 하락 폭 다시 커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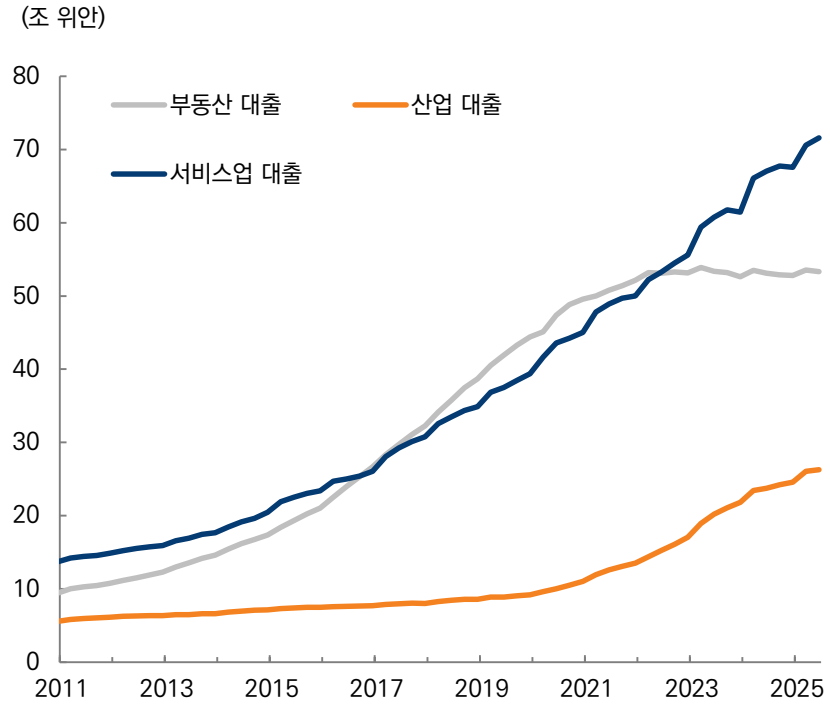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양호한 유동성 여건: 중국 신용 팽창은 부동산 제외하고 진행

이른바 '생산적 금융'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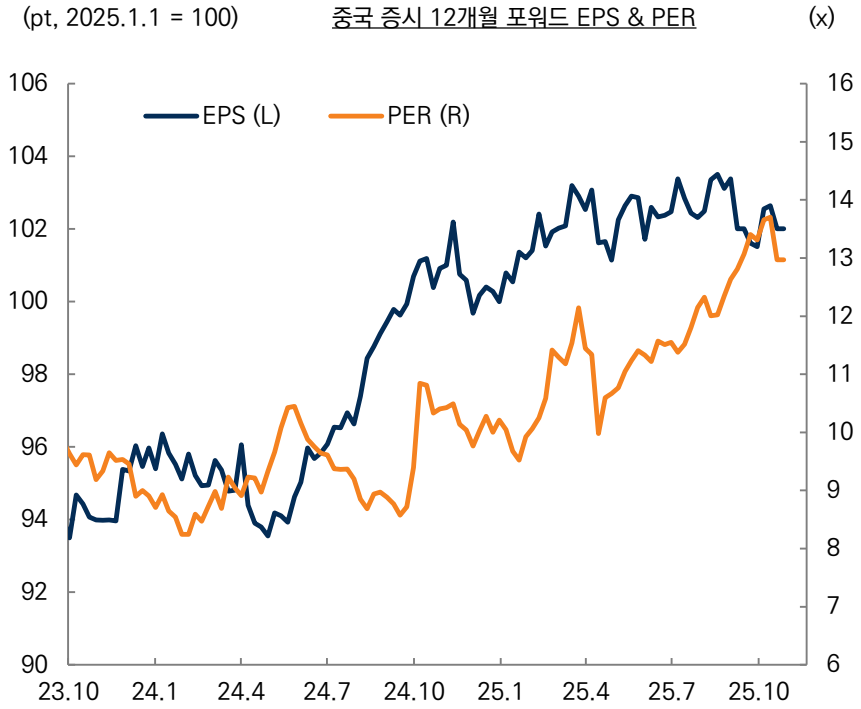
- 저금리 여건 하에서 은행권 대출 팽창. 하지만, 부동산 대출은 2022년 이후로 늘어나지 않고 있음.
-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흘러가지 않게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며, 그 대신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계로 대출을 활발히 증가.
- 동일한 규모의 신용 팽창이 발생해도 중국에서는 그것이 부동산으로 향하지 않기 때문에, 증시에 더 우호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
- 올해 중국 증시는 EPS 추가 상승이 제한된 가운데 PER 상승에 따른 강세 진행 중. 유동성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대출 증가하지만 부동산으로는 가지 않음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증시: 지난해에는 EPS 증가로 강세, 올해는 PER이 상승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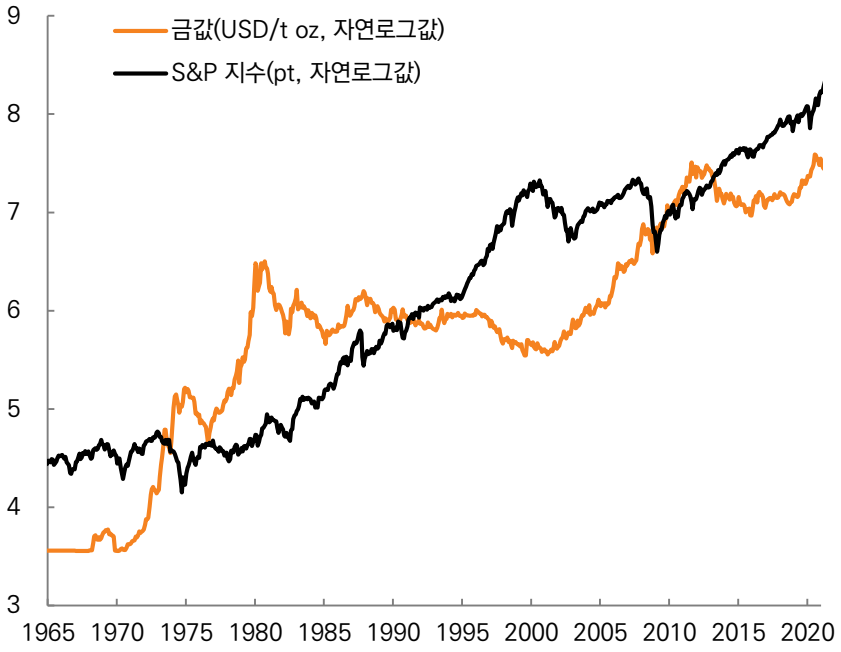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Refinitiv,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Everything Rally

미국 주식과 금의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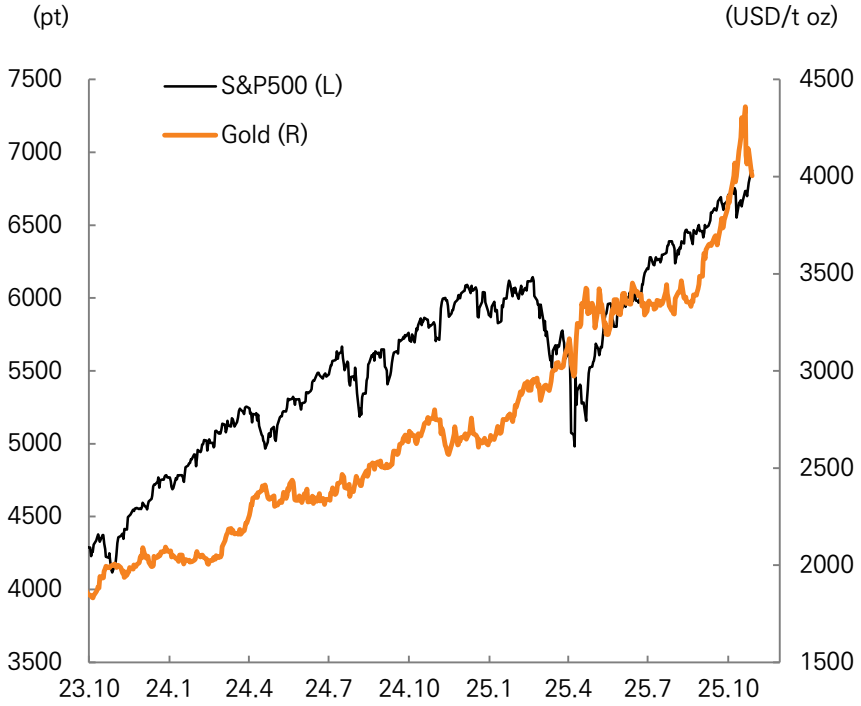
- 양호한 유동성 여건은 '에브리씽 랠리'를 유발. 각종 금융자산 가치가 전반적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과 미국 증시의 동반 강세 진행.
- 장기적으로 금값과 미국 주가지수는 상극의 속성을 보여 왔음. 금값 강세 국면에서는 미국 증시 조정, 미국 증시가 강할 때는 금 값이 약세 조정을 보여 온 것.
- 서로 엇갈리는 지그재그 형태로 장기 상승 추세를 보여 왔는데, 근래에는 동반 강세가 나타나고 있음. 이런 현상은 결국 유동성이 풍부한 데서 비롯됐다고 판단됨. 즉,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산 가치들이 부양되는 양상.

금값과 미국 주가지수: 한 쪽이 강할 때 다른 한 쪽은 약하거나 정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근래에는 금값과 미국 주가지수 동반 상승세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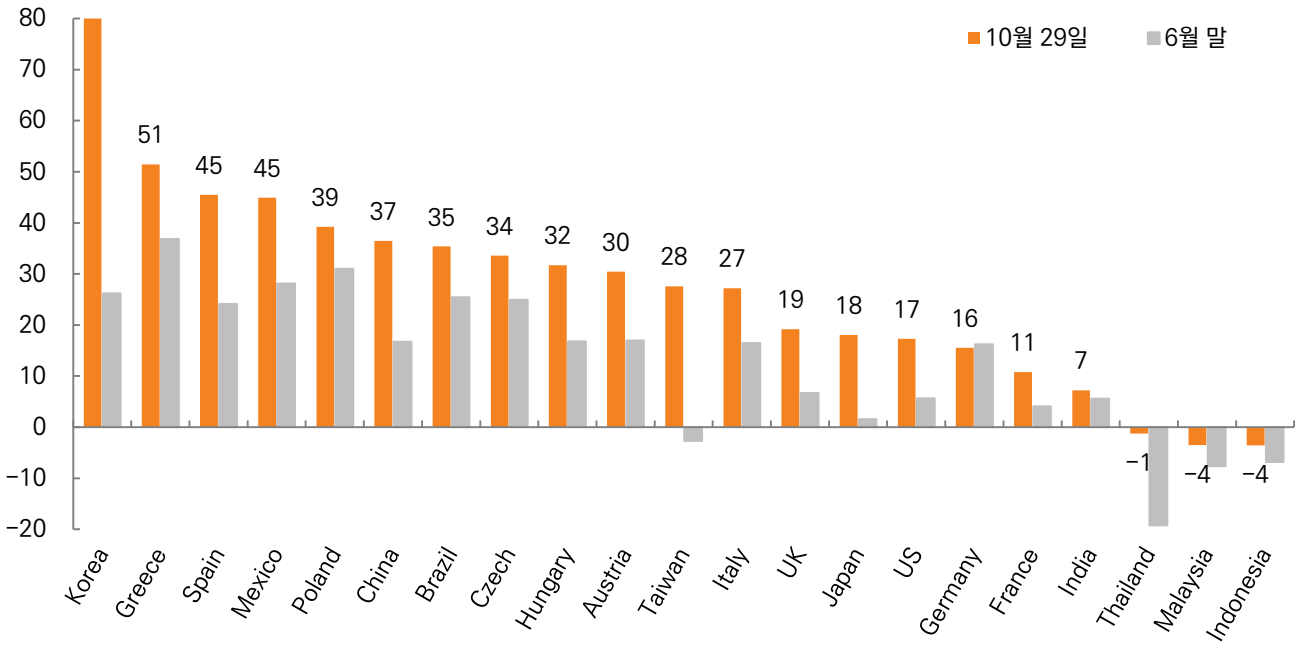
Everything Rally (2)

올해 전세계 증시는 예외적으로 높은 수익률 달성 중

- 미국 증시는 올해도 결국 강세를 보여 10%대 후반의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올해는 그 2배 이상 주가지수 상승률을 보이는 국가들이 다소 존재. 가령, 중국이 미국의 2배 이상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한국은 중국의 2배 이상 수익률을 기록 중.
- 그 외에도, 그리스, 스페인, 멕시코 등 올해 현재까지 30% 이상의 주가지수 상승률을 보이는 국가들이 유럽과 신흥국에 다수 존재.

많은 국가에서 올해 30% 이상의 주가지수 상승률 달성

2025년 연초 이후 국가별 주가지수 상승률 (%, MSCI 지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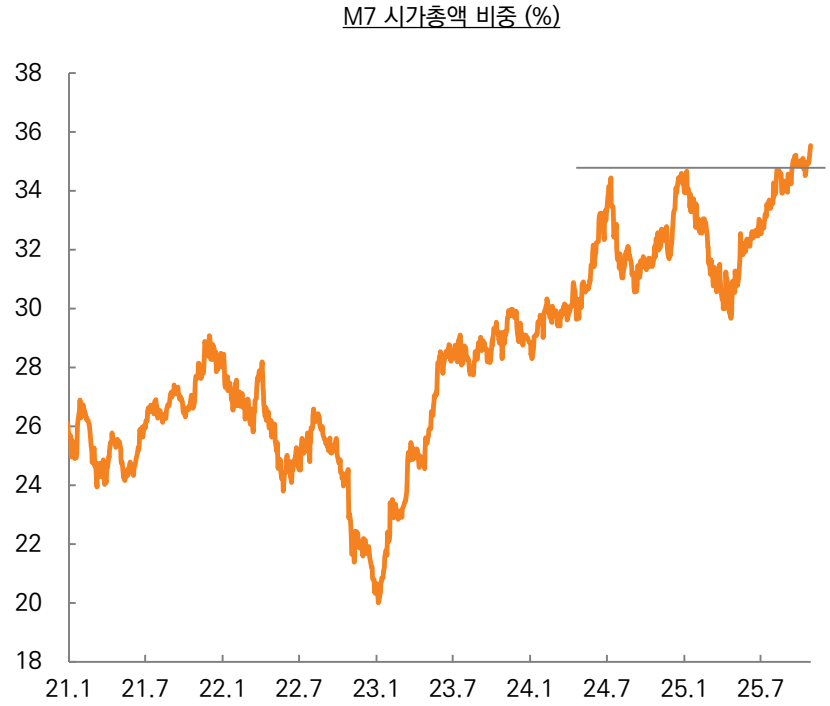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주식 견고한 주가 상승세

미국 증시 6개월째 상승 랠리, 빅텍의 시가총액 점유율 상승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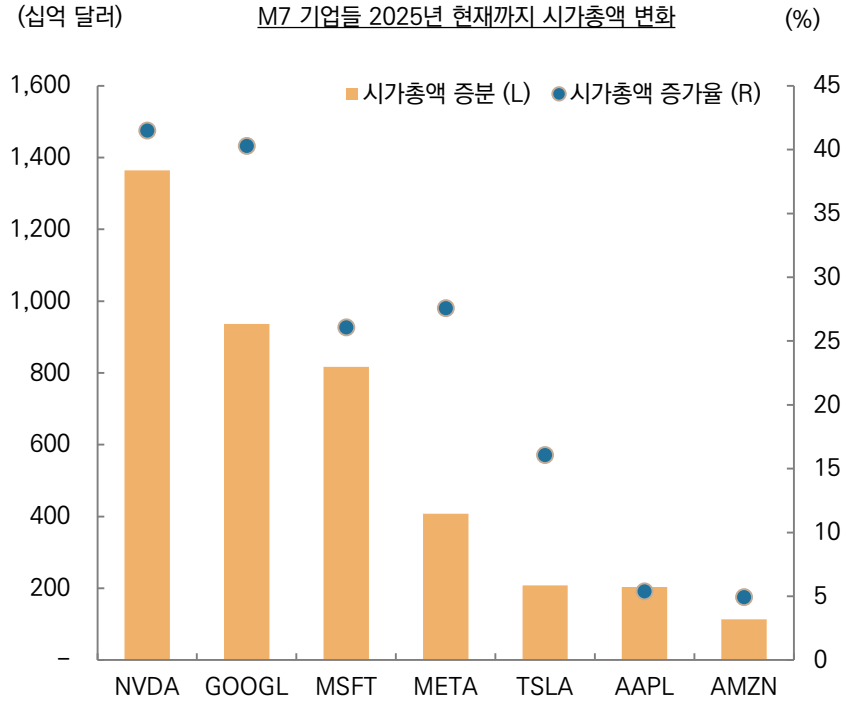
- 엔비디아의 시장 주도력이 유지되고 알파벳의 저력이 확인되면서 M7의 시가총액 비율을 35%대, 사상 최고 수준.
- 하반기만 보면, 엔비디아보다 알파벳의 시가총액이 더 크게 증가한 것이 빅텍 내에서 특징적, 우려가 많았던 애플도 결국 강하게 반등.
- 단, 최근 메타플랫폼스 실적 발표 후 주가 급락 사례에서 보듯이, AI 과잉 투자 논란 또는 수익성 검증의 중요성은 주가가 오를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음. 미국 주식에 대해 과도한 노출을 줄여야 한다는 기존 관점 유지.

M7 시가총액 비중 35%대로 사상 최고 수준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M7 중에서 엔비디아 알파벳 MS 순으로 시가총액 증가 폭이 큼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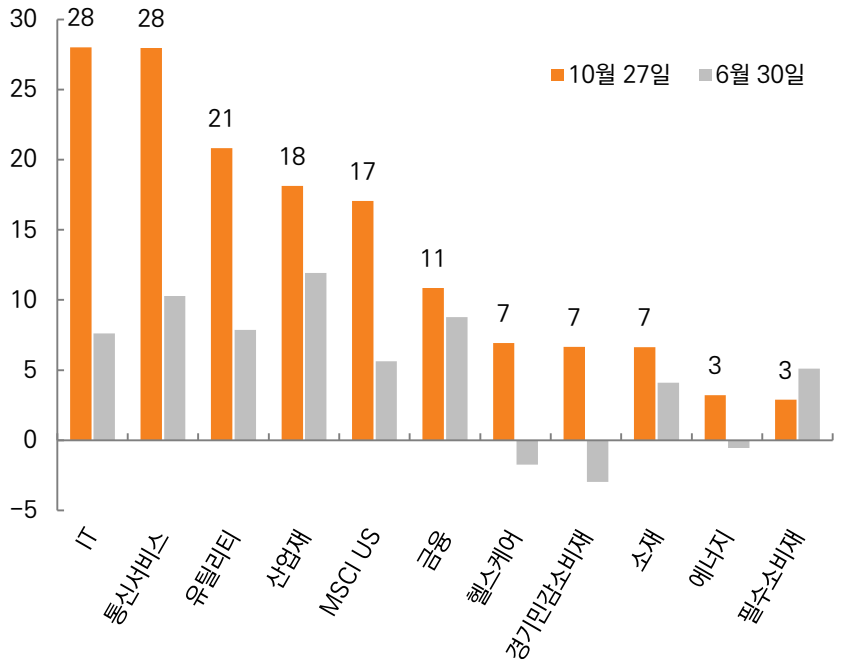
미국 주식 투자전략

AI + 인플레 헤지

- 올해 현재까지 마켓 아웃퍼폼 섹터는 IT 통신서비스 유틸리티 산업재로, 이들 모두 AI 생태계 성장에 연동.
- 여기에, 인플레 헤지 전략을 더해서 좀더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권고. 인플레 헤지 전략의 대표적인 것이 우라늄과 희토류, 그리고 금.
- AI와 인플레 헤지 전략의 교집합에 우라늄이 있음; 원전 확대를 위한 필수 원자재.
- 아울러, 희토류는 미국이 대 중국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개발 노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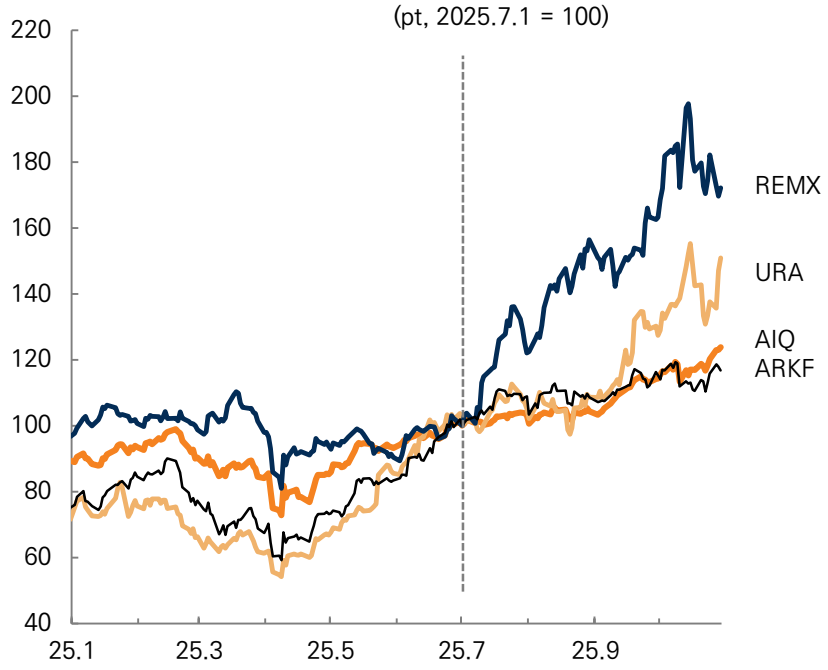
시장 수익률을 초과한 업종은 IT 통신서비스 유틸리티 산업재

2025년 연초 이후 미국 섹터별 주가 상승률 (%, MSCI 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I는 꾸준하고 안정적 강세, 희토류, 우라늄은 수익률 변동성 모두 높음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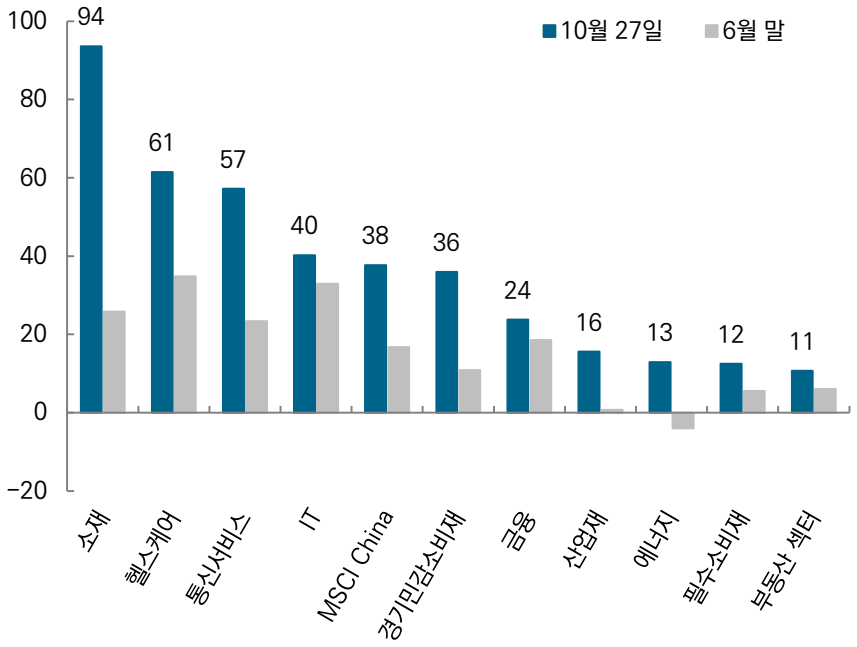
중국 주식, 기술주 중심 투자 전략 유지

기술주 + 구조조정 테마

- 중국은 디플레 압박에 따른 초저금리 환경 하에서, 기술주, 성장 스타일 강세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하반기 중국 증시 강세를 견인하는 것은 소재 섹터, 특히 배터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주이면서 구조조정 테마가 동시에 작동.
- 하반기에는 중국 IT 섹터가 기대보다 저조한 가운데, 경기소비재, 산업재, 에너지 등으로 매기가 확산되는 징후가 확인됨. 이런 관점에서 구조조정 테마에 포함되는 태양광 섹터도 긍정적 관심이 필요해 보임.

소재 초강세 유지, 기술주가 시장을 리드하나 IT 하반기 퍼포먼스는 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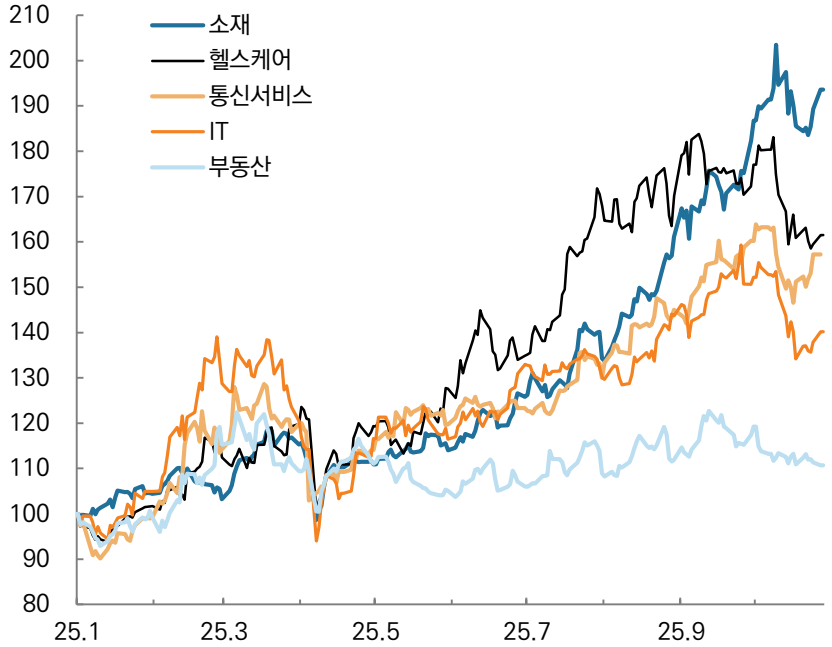
연초 이후 섹터별 주가 상승률 (%)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증시 조정 후 반등 양상 속, 헬스케어 조정 지속, 부동산 계속 부진

(pt, 2025.1.1 = 100) MSCI China 섹터별 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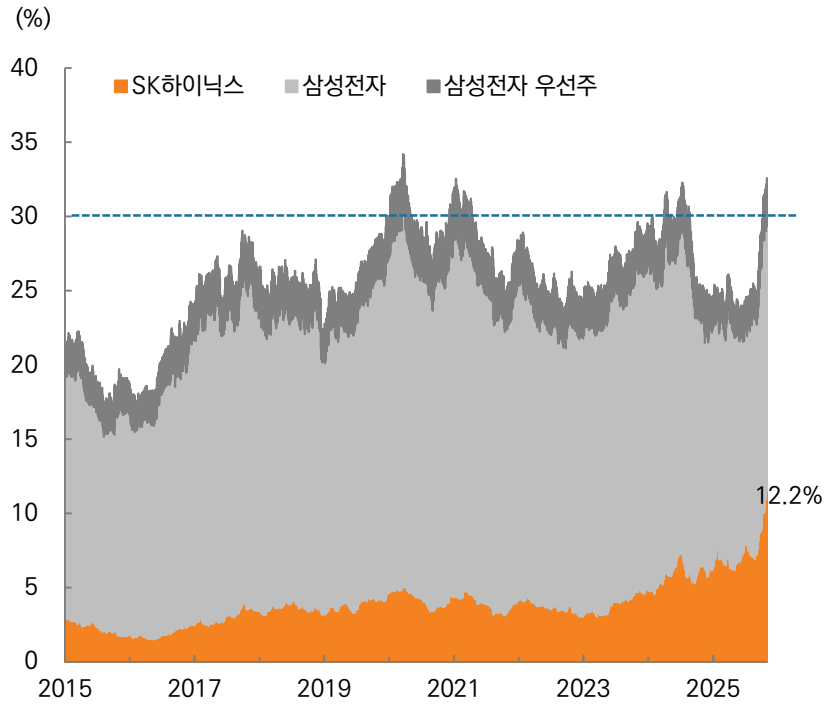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주식은 반도체와 기존 주도 섹터로

순환매 발생 중이나 포트폴리오는 계속해서 선별 압축적으로 갈 것을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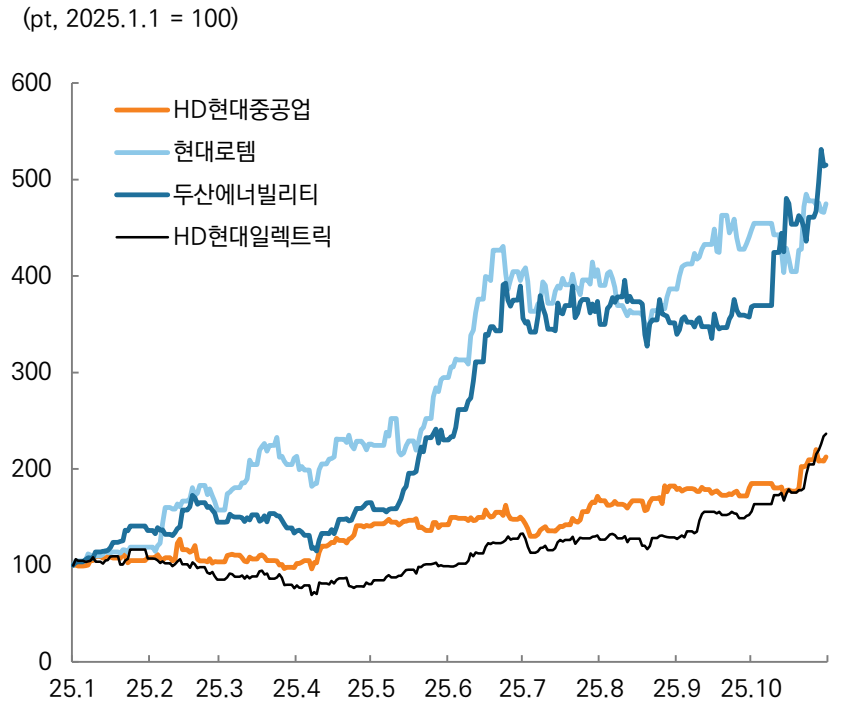
- 한국 내년 기업이익 증액의 핵심은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내년 합산 예상 이익은 150조 원에 근접, 시장 전체의 절반 수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추가 상향 잠재력도 보유.
- 그리고, 기존 주도 섹터인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도 이익 성장세의 확실성이 매우 높고 투자 포인트/스토리 또한 매력적. 증권업도 긍정적.
- 반면, ESS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차전지 전반적 강세가 진행되었으나 기업 선별이 중요할 것이며, 최근 자동차 섹터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성장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워 보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 급상승, 30%대를 회복



자료: KRX,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강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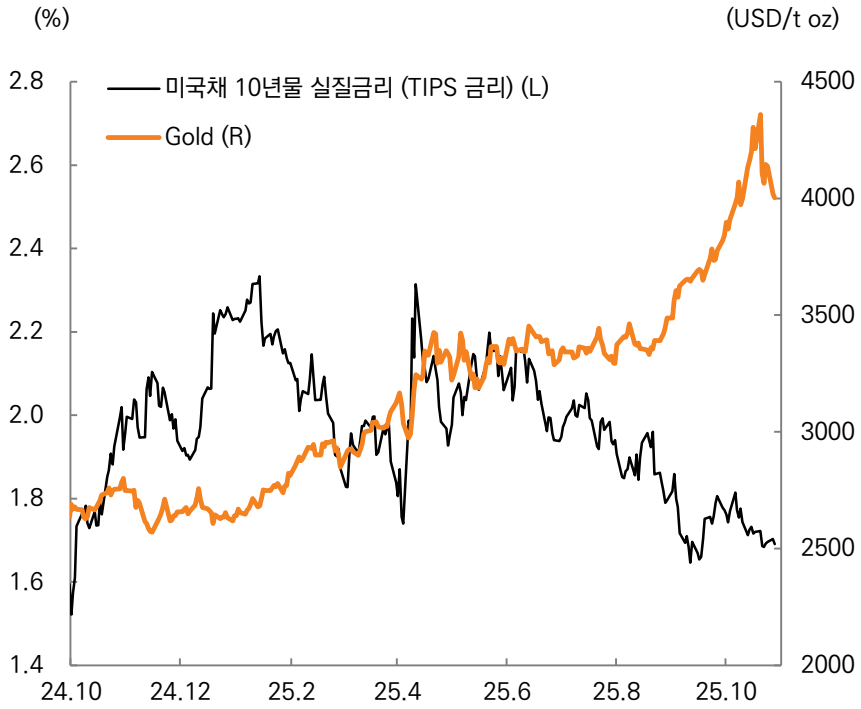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원자재 테마: 금과 금속

연준 금리인하와 산업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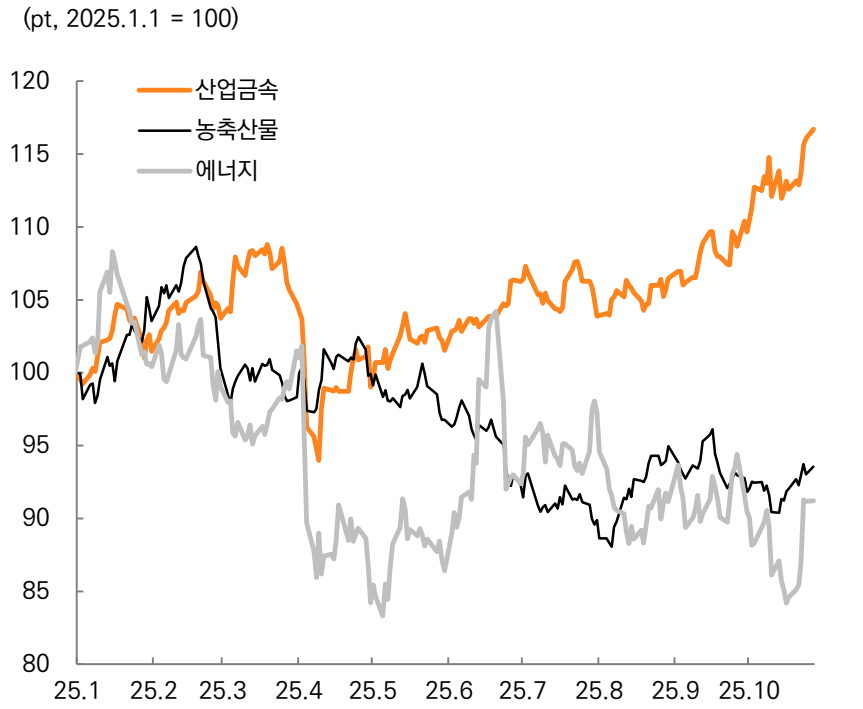
- 앞서 정리한 대로, 기본적으로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여건 하에서 연준 금리인하마저 재개되는 상황. 이것이 9월 이후 금값이 다시 랠리를 보였던 핵심 동력. 속도가 조금 과도했던 탓에 10월 하순 가격 조정이 있었으나, 강세 기조 지속 가능성 높음.
- 하지만, 유동성 여건이 양호하다고 모든 원자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아님. 공급에서 여유가 느껴지는 원유, 농산물 등은 하향 안정화 기조.
- 구리 등 산업금속은 데이터센터 건설 급증 등의 영향으로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세.
- 인플레에 영향이 큰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 되어 있다는 점은 금과 금속의 랠리 지속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 내포.

금리인하 기대(실질금리 하락)에 9월 이후 금값이 가파른 랠리를 보였음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 안정 속에서 산업금속 강세 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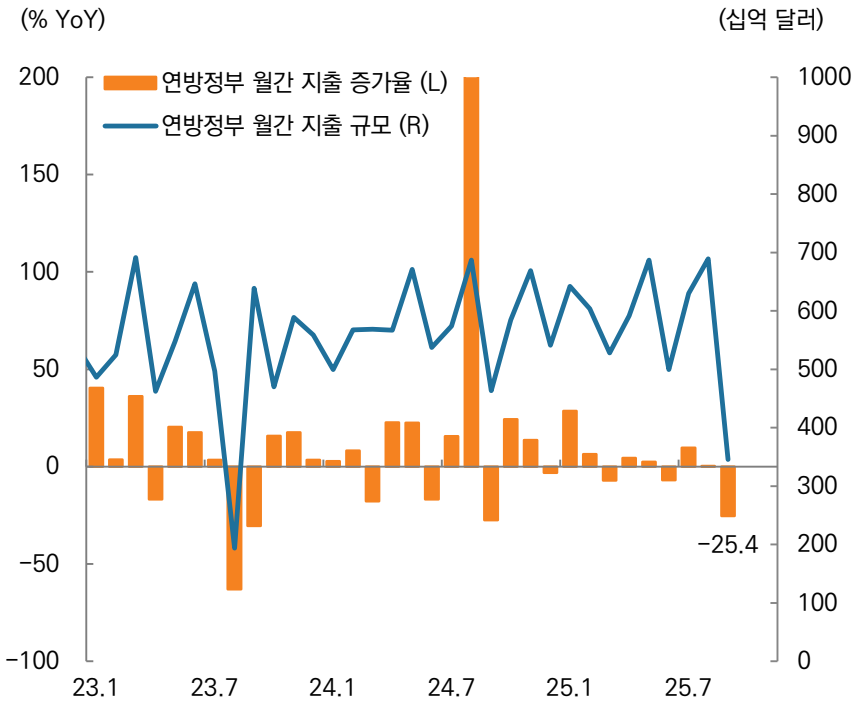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여전히 미국 인플레가 핵심 리스크 중 하나

연방정부 셧다운에 인플레도 일단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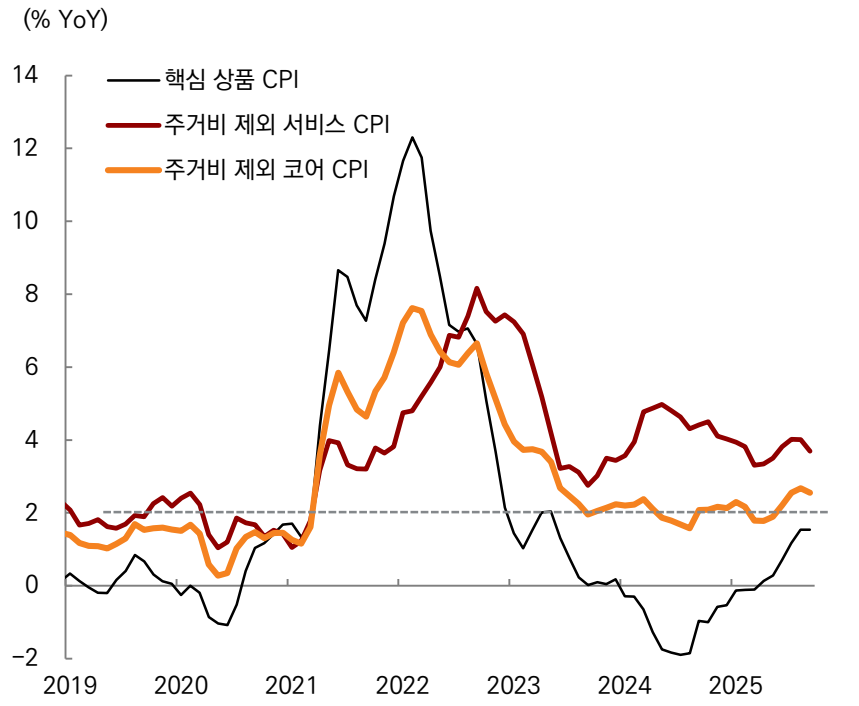
- 미국 9월 연방 정부 지출은 전년비 25%의 감소율을 기록,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
- 이는 낮은 국제유가와 함께 미국 인플레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됨. 9월 미국 핵심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0.2% 상승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음.
- 정부 셧다운 여파 속에서 잡마켓 상황도 개선 됐을 것이라 판단하긴 어려움. 더욱이, 고용 관련 데이터 발표조차 없는 상황.

미국 9월 재정지출 급감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인플레 상승세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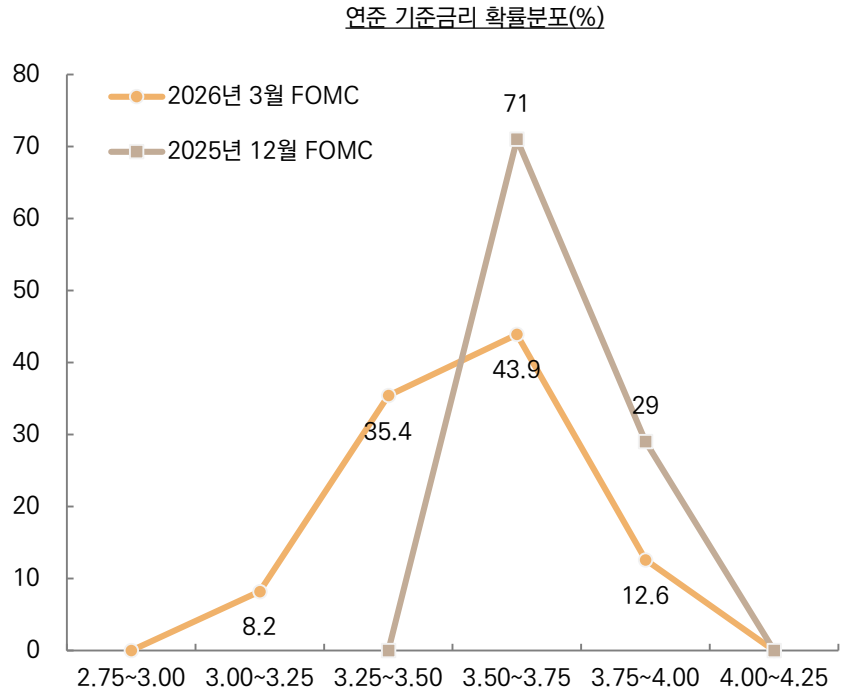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여전히 미국 인플레가 핵심 리스크 중 하나 (2)

12월 FOMC 불확실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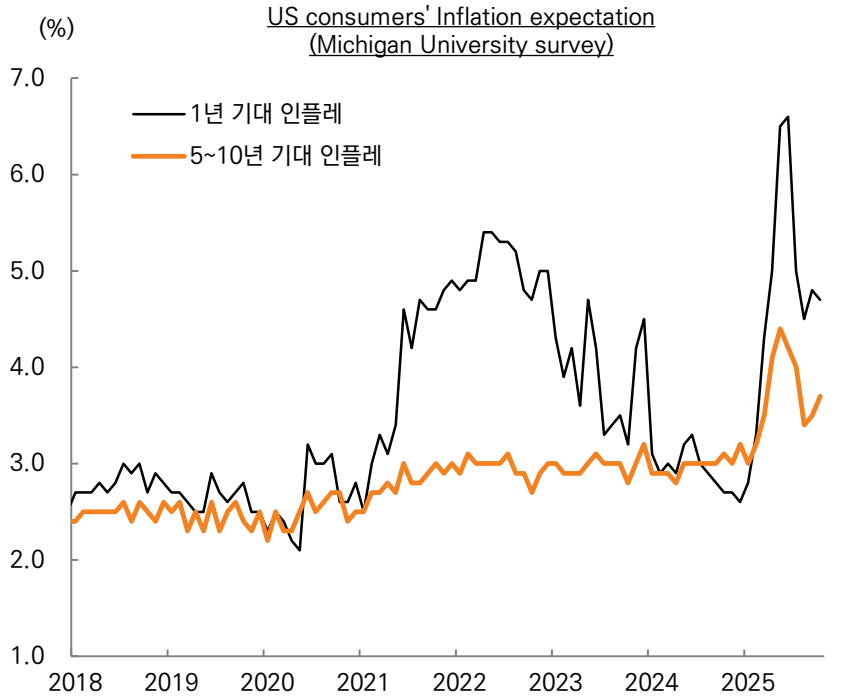
- 정부 셧다운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경제지표 확인 없이 연준 통화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 이는 매 회의 데이터 디펜던트에 의한 의사 결정을 강조하고 있는 연준 입장에서는 매우 도전적인 상황을 의미.
- 10월말 FOMC 기자회견에서 다음 번 금리인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파월 의장 발언은 이런 취지로 해석 가능.
- 하드 데이터가 없다면 다른 데이터로 판단할 수 있으며, 서베이나 시장에서 확인되는 기대 인플레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음.

여전히 12월 금리인하 기대가 높은 편



자료: CM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기대 인플레 여전히 높고 불안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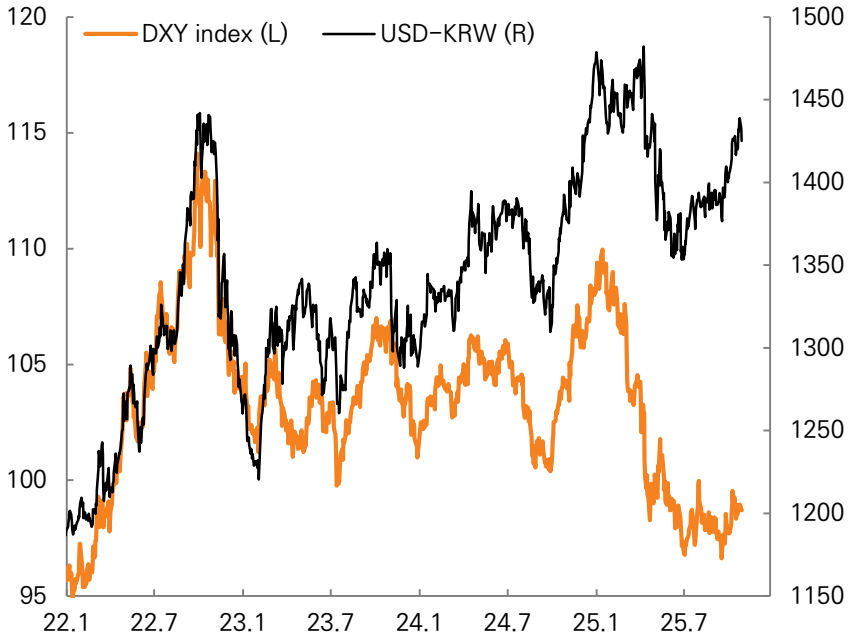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달러 원 환율 상승 추세

원화 상대 약세 지속,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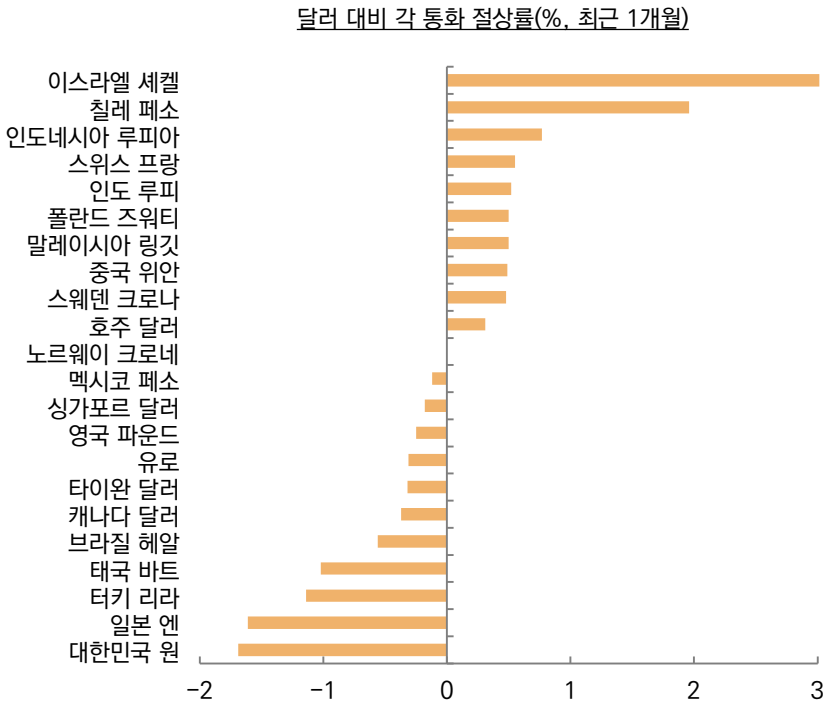
- 미국달러가 하반기에 소폭 반등한 가운데, 달러 원 환율은 저점 1,350원 대비 약 80원 상승.
- 즉, 하반기에 원화 상대 약세가 선명한 상황. 최근 한 달도 주요 통화 중 최하위 수준.
- 단기적으로는 엔화 약세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임. 위안화 대비 약세 지속되면서 위안화 환율은 이제 200원대.

달러 인덱스 하반기에 소폭 반등, 달러 원 환율은 약 80원 상승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최근 한 달 동안도 원화 상대 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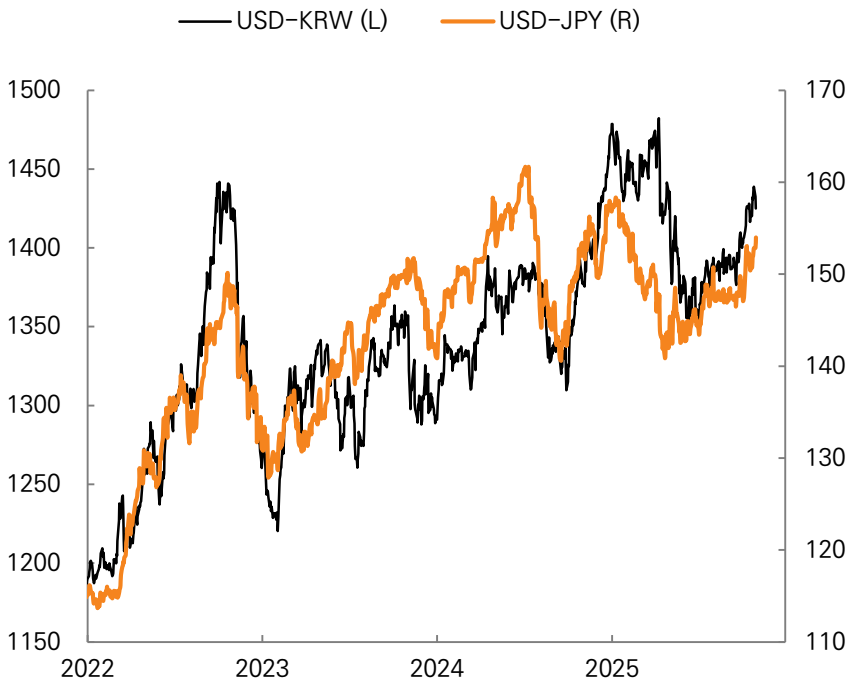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10월 28일 14시 기준(한국 표준시)

달러 원 환율 상승 추세 (2)

일본 신내각 출범 후 엔화 약세에 원화 동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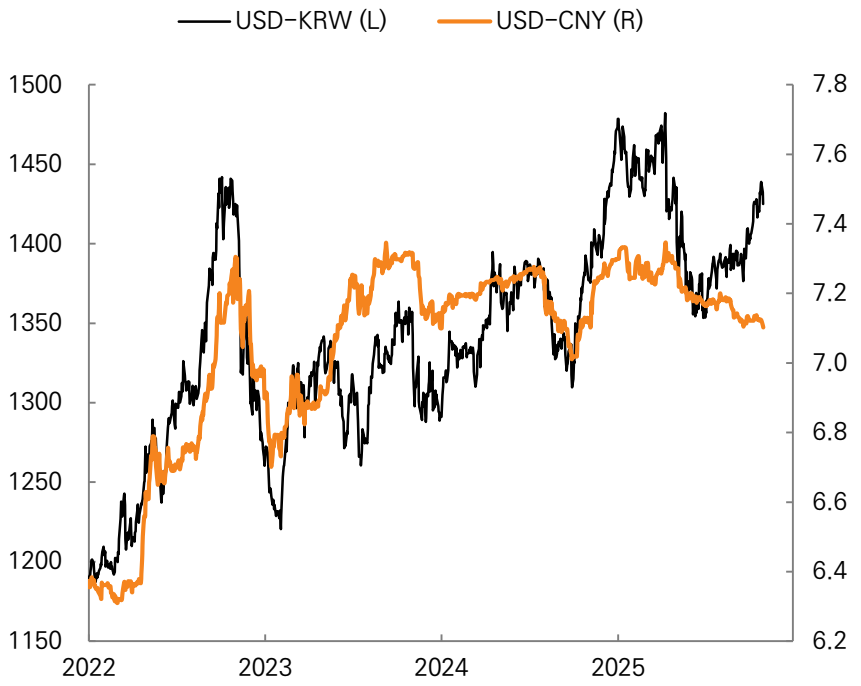
- 우여곡절 끝에 일본 신내각 출범.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아베노믹스 계승을 천명하면서 엔화 약세, 달러 엔 환율 150엔대 중반까지 상승.
- 최근 위안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엔화 약세에 강한 동조성을 보였다는 것은 원화 자체의 힘이 약하다는 방증이 될 수 있음.
- 2013년 아베노믹스 시작 당시와는 일본 인플레 등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엔화 추가 약세가 제한될 듯하나, 이것이 원화 가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
- 원화 가치 회복을 위해서는 내년 수출 둔화 우려 완화,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금 유출 감속 등의 조건이 필요해 보임.

엔화 약세에 동조화된 원화 약세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위안화는 달러 대비 절상 기조 유지, 원화와 위안화 차별화 4개월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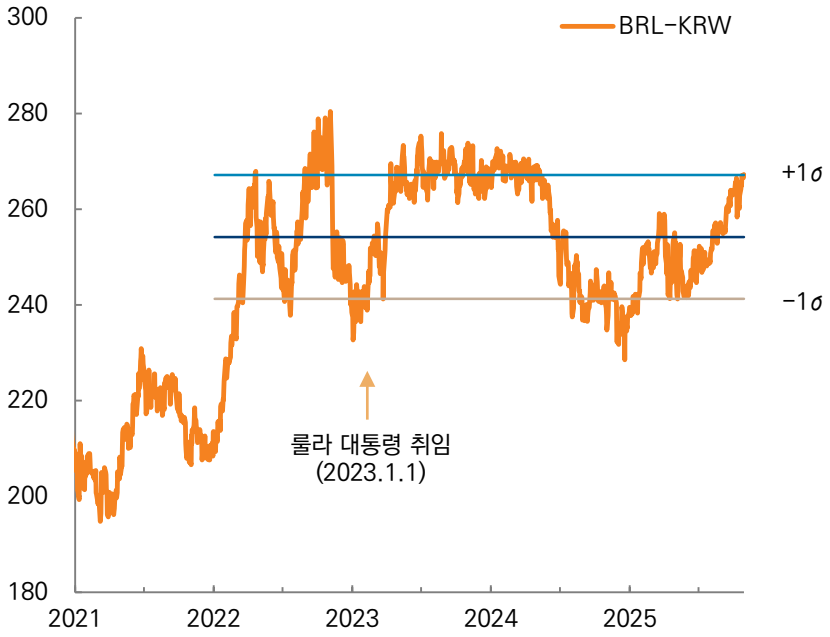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자원국에 대한 관심 상향

원화 대비 헤알 강세 유지, 호주 달러도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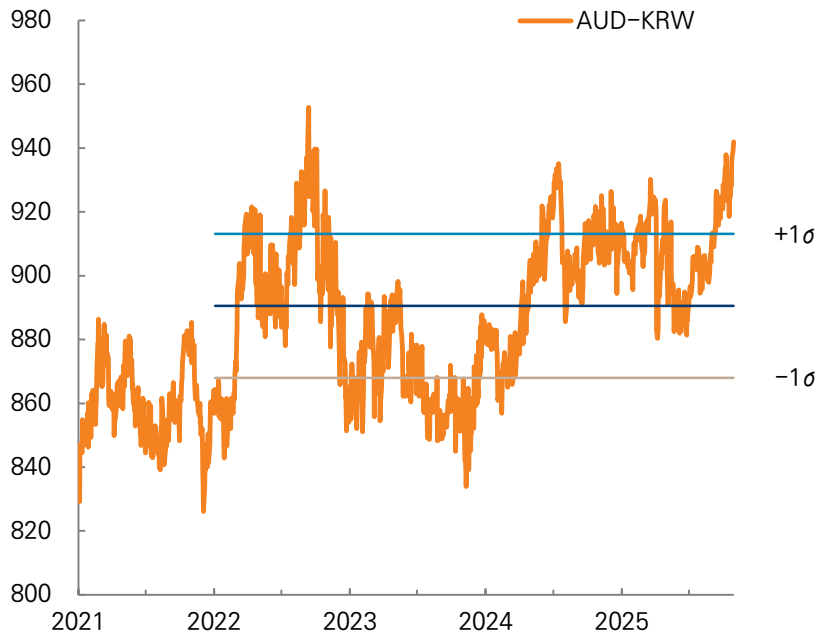
- 미중 무역 갈등, AI 인프라 투자 등에 있어서 희토류 등 광물 자원 필요성이 커지고 그에 따라 관련 자원 부국들에 대한 관심도 동반 상승. 대표적인 국가로 브라질과 호주를 꼽을 수 있음.
- 브라질은 근래 재정 및 인플레 관리에 신뢰할 만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자원 부국 강점 부각, 브라질 국채에 긍정 관점 유지.
- 호주는 AAA 등급의 재정 건전성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미국의 호주 희토류 투자 뉴스도 확인되는 상황. 원화 대비 호주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는 관점에서 호주 국채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처를 모색해 볼 만함.

원화 대비 브라질 헤알 강세 유지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원화 대비 호주 달러 강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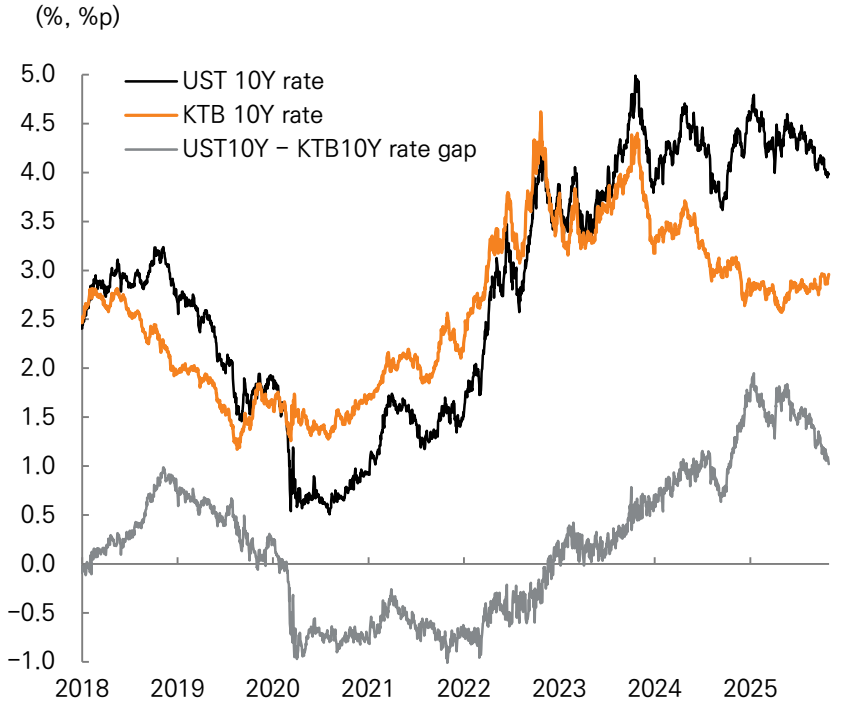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한국채는 적절히 비중 유지

한국 국채 금리 하락 전환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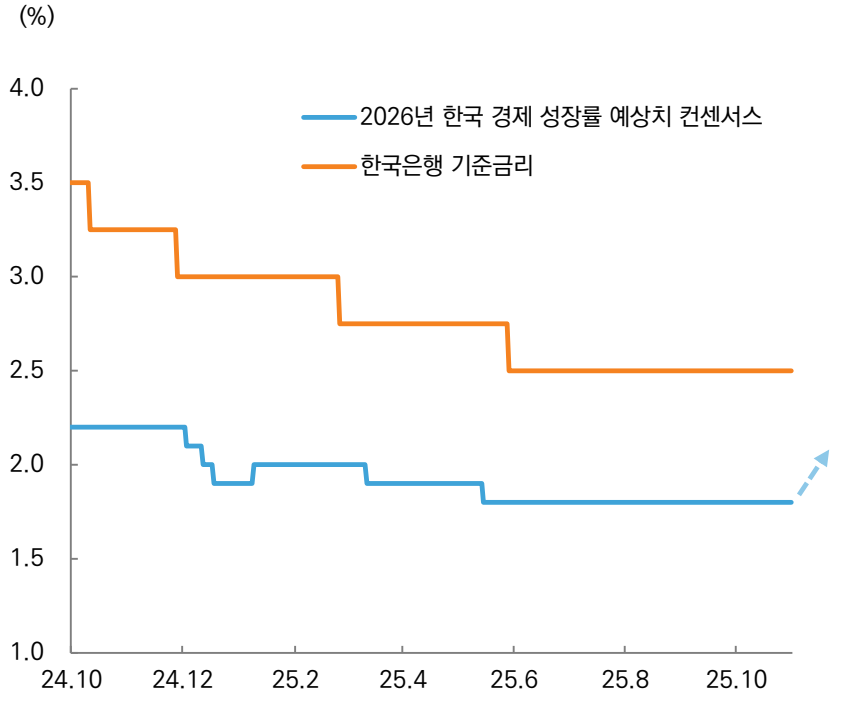
-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도 한은 기준금리 동결 예상됨. 부동산 이슈, 환율 이슈 뿐만 아니라, 경기 전망 상향 움직임도 동반되고 있음.
- 3Q25 GDP 서프라이즈 확인 후, 2026년 한국 경제 성장률 2%대 전망이 늘어나는 모습임. 확장 재정정책, 채권 공급 증가 우려도 상존.
- 다만, 한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3%에 근접했고 미국채 10년물과 금리차가 100bp로 축소되어 가격 매력도는 많이 높아졌다고 판단됨.
- 한국 국채에 대해 단기적으로 중립적이나 중기적으로 긍정 관점 유지.

최근 한국 국채 금리 상승하면서 미국채와 10년물 금리차 100bp로 축소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성장률 전망 후퇴 제한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동결 기조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